

♥ 2023 경기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수기 ♥

기본소개

인삿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에게도 드디어 합격수기를 쓰는 날이 오네요. 공부하며 힘들 때마다 합격수기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합격하면 저도 꼭 합격수기를 적어 제가 도움 받았던 만큼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쓸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어 정말 감사하네요.

합격수기를 시작하며, 절대 제 공부방법이 정답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말 수많은 공부방법이 있으니 이런저런 합격수기를 찾아보시면서 조금 조금씩 참고하시고 맞는 방법을 찾아나가시길 바라요!

공부시작 시 구매 추천템

1. 무한잉크 프린터기



2. 타공기



3. 루즈링



4. 링라벨스티크



제 기준 필수템 4가지입니다! 공부할 때 프린트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프린트 양이 강사들 모두 누구는 적다 말할 것 없이 어마무시 하거든요. 그래서 꼭! 무한잉크 프린터기와 A4 용지를 박스채로 구매해두시길 추천드려요. 나머지 타공기, 루즈링, 링라벨스티크는 매번 인쇄소 가서 맡기기 번거로우니까 넉넉히 구매해두면 셀프 제본하기에 정말 편리하므로 추천합니다!

1차 (2022.01~2022.12)

공부 양

무조건 공부를 가리는 것 없이 책을 통째로 외우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시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할당량을 다 해도 계획했던 것보다 공부시간이 남으면 더 할 걸 만들어서라도 했어요.

	1월	2~4월	5~6월	7월~8월	9~11월
휴일	일주일에 2일	일주일에 1일	일주일에 1일	하루 반휴	X
공부시간	4~5시간	7~8시간	8~9시간	9~10시간	기본 13시간 최대 15시간
기상시간	정해놓지X	오전 8시	오전 7시~8시	오전 6시~7시	오전 6시

참고로 추석, 설날 때 쉬지 않았어요. 약속은 갔다 오면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에 2월 이후로 한 번도 잡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남는 방 하나를 공부방으로 만들었어요. 창문형 에어컨도 놓고, 프린트기도 있었고, 책들도 모두 다 그 방에 모아두었어요. 제 방은 온전히 잠 자는 시간과 쉬는 날에만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7~8월부터는 공부방에 이불 깔고 먹고 자고 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지 싶어요..

공부 계획

한달 계획	
4월 첫째 주	동작, 체육
4월 둘째 주	언어 (듣기, 말하기)
4월 셋째 주	언어2 (읽기, 쓰기)
4월 넷째 주	문학

4월 4일		4월 5일	
금주 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 1,2,3강 이번주 진도 10~50P 논술 강의 1,2강 	금주 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 4강 이번주 진도 56~106P 어제 복습 10~50P 논술 필사 누리과정 실행자료
이전 복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주 복습 160~196P 	이전 복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주 복습 197~229P

저는 뺏속까지 계획형이에요. 계획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그래서 한 달 단위로 간단히 계획을 짜두고 하루하루 최대한 세세히 짜려고 했어요. 계획은 지키지 못할 만큼은 절대 짜지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계획하되 그것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계획을 지키지 못했던 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표처럼 한달 단위 → 일주일 단위 → 하루 단위 이런 식으로 한 달 단위로 짠 다음 하루치 계획을 일주일마다 세워두었습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은 조금씩 수정하면서 해나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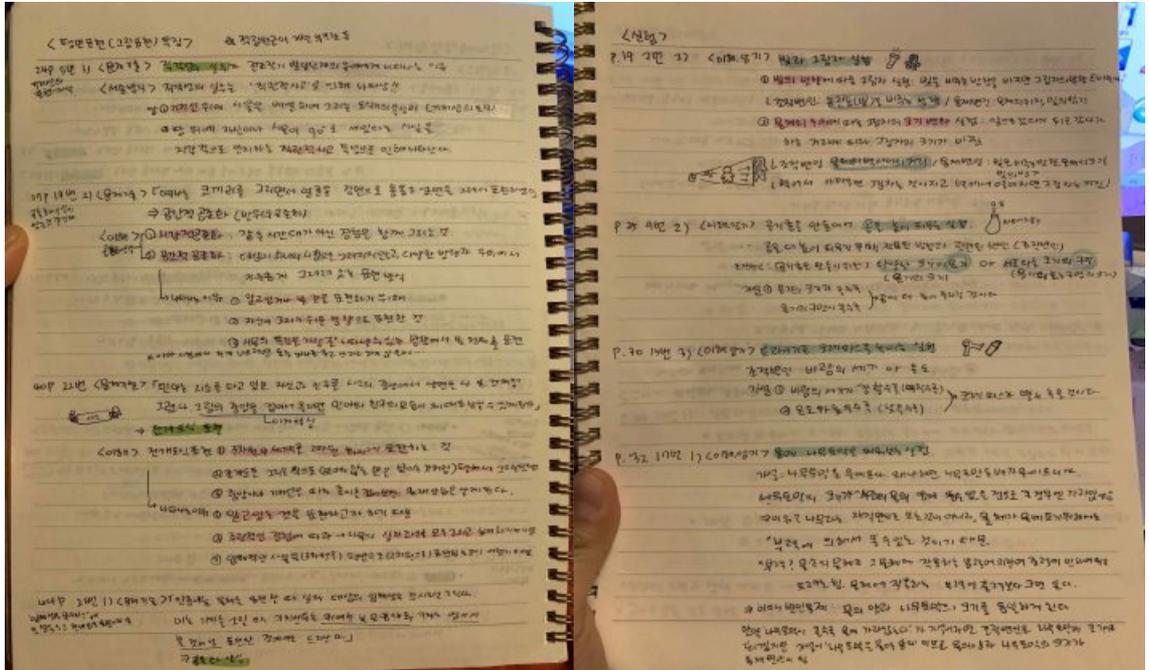
시기별 공부방법

(1~3월) 개론 #회독 #처음은 가볍게 #나만의 요약본 만들기
 [회독] 1~4월에는 회독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공부해두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0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2월에는 정말 가볍게 공부를 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달리면 뒤에 가서 지치는 제 성향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책이 다르다보니 공부하는 내용이 그 깊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개론 파트가 단 한 권의 책으로 (요약되어) 다루어졌던 작년 커리와는 달리, 개론만 엄청난 두께의 교재로 2권, 분철하여서 총 4권이라는 줄글로 된 교재로 진도를 나갔으니까요. 일주일마다 발달/사상사/놀이/부모/교사론 등 이런 식으로 민쌤이 나가는 진도에 맞춰 계획을 세웠어요. 월,화,수는 강의를 듣고 강의 내용 복습했고, 모든 요일에 이번 주 강의 내용 복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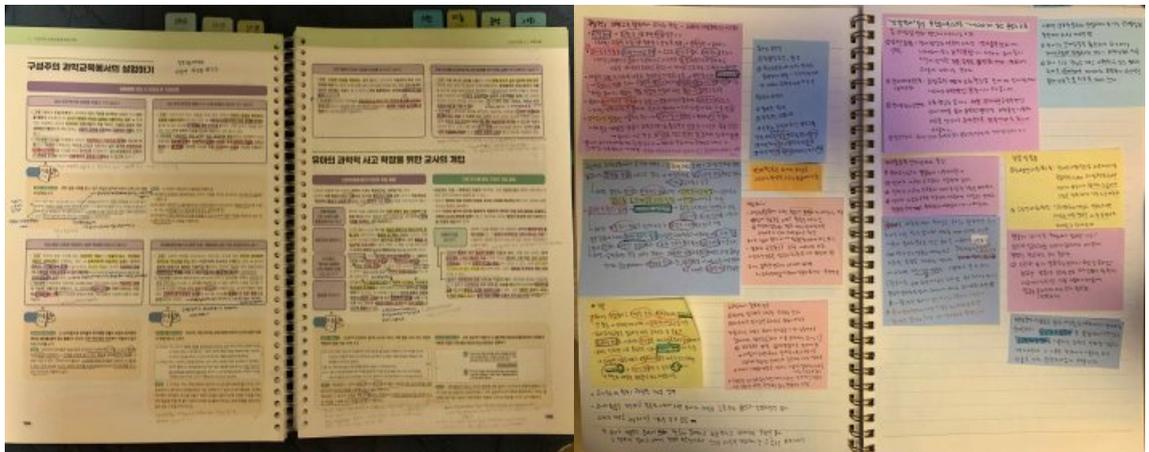
(7~8월) 문풀 #자기 #웹지도 활용 #요약본 #오답노트

[문풀] 민쌤은 문풀 문제가 좋기로 유명하죠. 이번에는 책으로 나와서 저는 더 풀기 편했던 것 같아요. 개론과 각론 합쳐서 총 11권의 문풀 교재가 있었는데, 저는 기출변형 일부 문제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냥 많이 풀어볼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문풀을 풀며 보냈습니다. 먼저 각론이 나오고 개론이 그 후에 나와서 뒤에 교육과정과 아동복지 파트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깊다 싶은 문제는 제외했어요. 그 외에는 가능한 한 다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문풀을 풀지 않는 날에는 문풀 오답체크하고 개각론 복습했습니다.

[오답노트] 제 공부의 핵심은 오답노트와 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답노트는 우연히 보게 된 합격 선생님 블로그에 올라온 오답노트 방법을 활용했어요. 그 블로그를 찾으니깐 안보여서.. 사진으로 남길게요. 사진처럼 최대한 자세히 적으려고 노력했어요. 틀린 문제 간략하게+문제 내용+정의+풀이 등 정리해두고 오답노트에 쓴 것도 최대한 다 외우려고 노력했어요. 거의 스프링 노트 한 권을 다 오답노트로 사용했고, 학교 등하교하면서 길거리에서, 버스에서 들고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맨 위에 있는 그림자 문제 보이시죠?? 네.. 올해 시험에 나왔었죠 그림자 문제.. 오답노트 하면서 외워둔 덕분에 저는 정답을 쓸 수 있었습니다.



[웹지도] 웹지도는 제 기억상 8~9월..? 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개론 웹지도는 안 나오고 각론 웹지도만 나와서 각론 파트는 웹지도+요약본을 함께 보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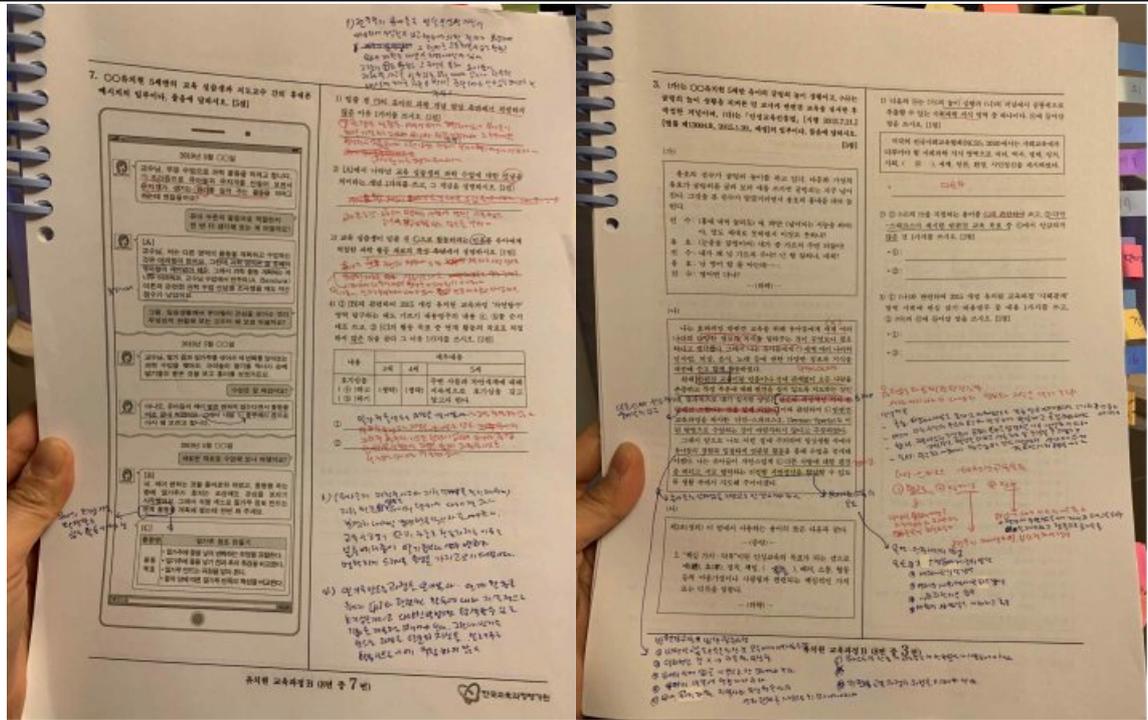


▶ **장소:** 저는 원래 집공파였는데, 모고는 스테디카페에 가서 봤어요. 진짜 최대한 시험장 처럼 생긴 곳을 찾아서 손목시계도 챙기고 도시락도 싸들고 매번 진짜 시험처럼 시간 맞춰 풀었어요. 여러 번 연습한 덕분인지? 저는 시험 때 정말 안 떨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긴장을 안 했던 기억이 나네요.

▶ **점수:** 카페에 보면 모고 시즌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무엇으로? 점수로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으나, 카페에서 합격생 선생님들이 모고 점수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해주셔서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모고보다 15점 이상이나 잘 나왔어요. 저는 모고 점수가 항상 논술제외 50~60점 사이였습니다. 고득점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정말 극극칼채로 해서요! 아, 제가 공부하면서 스테디는 하지 않았는데 이때 딱 한 번 꽤 도움을 많이 받았던 스테디가 있는데 **모고 극칼채 스테디**였어요. 다른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나 참고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제 점수를 알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어요~ 암튼 그래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고 점수 정말 상관없으니까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멘탈 잘 잡으셔서 공부하셨으면 해요.

▶ **오답노트:** 모고도 앞에 문풀과 같은 방법으로 오답노트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오개념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답노트를 하면서 오개념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계속 하면서 하반기가 되면 암기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초반에 이해했던 부분을 까먹는 경우가 생겨요. 진짜 이해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혼자 오개념을 가지게 돼서 공부하다가 인지적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답노트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모고 문제 중에 고든의 부모효율성이론의 교사의 잘못된 인식을 찾는 문제에서 답이 '유아가 문제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기출에도 나왔어서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모고에 나왔는데 갑자기 헛갈려서 완전 다른 답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쌤 해설 듣고 다시 한 번 이해하고 오답노트에 적어서 계속 반복반복 또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시험에 나왔어요. 만약 저에게 오답노트를 써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답노트 쓰라고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답노트 덕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기출분석]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작년에 기출을 해두었기 때문에 기출은 4~6월에 한 번 회독한 결로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심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8월에 시작한 암기가 여전히 계속 되었지만, 10월쯤엔 암기가 점점 지루해졌기도 했고, (왜냐면 이미 반복, 반복, 또 반복하다 보니까 다 제 것이 되었다고 느껴졌거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기출분석을 시작했다는 합격수기를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마침 모고를 풀면서 기출에서 나왔던 부분들도 자주 헛갈리는 게 느껴졌고 기출분석이 시급하겠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기출분석을 꼭 해보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한 3주 전?에 갑자기 2013년~2022년까지의 기출을 짹 뽑았습니다. 그리고 링으로 셀프제본하여 2022년부터 거꾸로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진처럼 지문 분석+그냥 보이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정의도 써내리고 문제도 풀고.. 매일 기출분석을 했습니다. 시험 3일 전에는 가장 최근 기출을 다시 한 번 풀었어요. 이때는 진짜 시험처럼 시간 맞추어서 풀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기출분석 또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기출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참고 사진도 넣어둘게요.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풀이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하나라도 더 넣는 게 더 중요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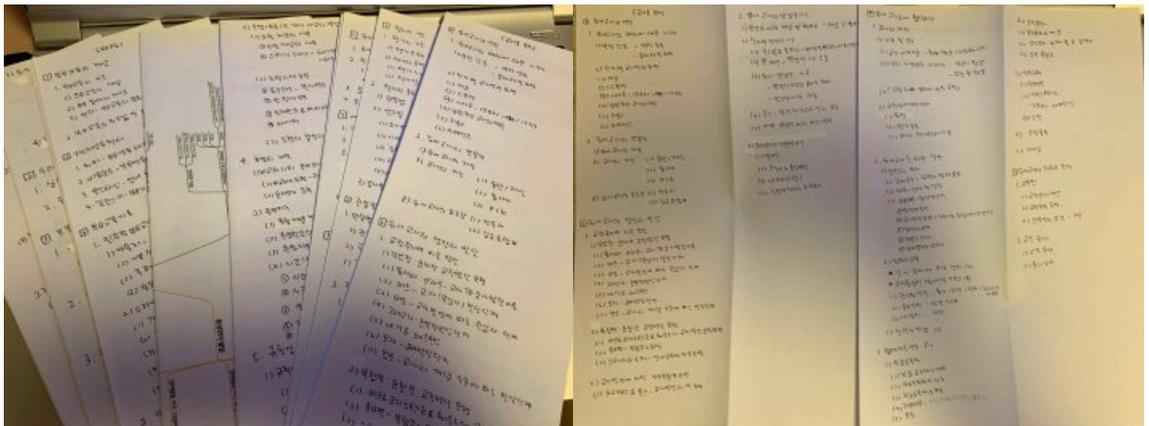


#목차활용 #통째로 암기

1. 목차 제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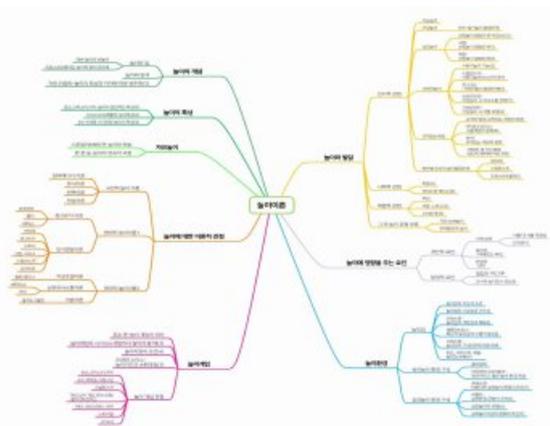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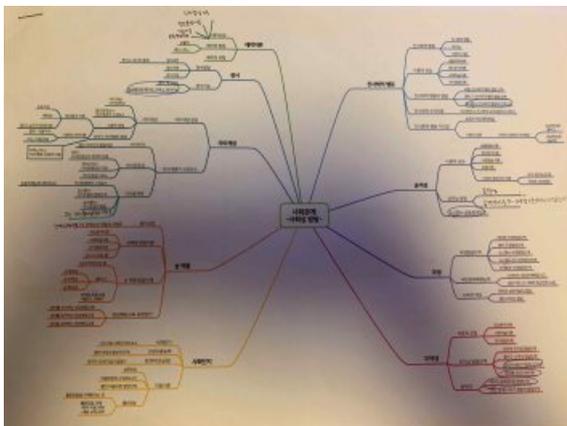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목차를 제작했어요! 한 가지는 마인드맵 형식으로 컴퓨터로 제작했고, 한 가지는 손으로 종이에 적어서 만들었어요. 사실 시간만 많았으면 다 컴퓨터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컴퓨터로 다 제작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암기/인출 방법



↑ 손으로 적어서 만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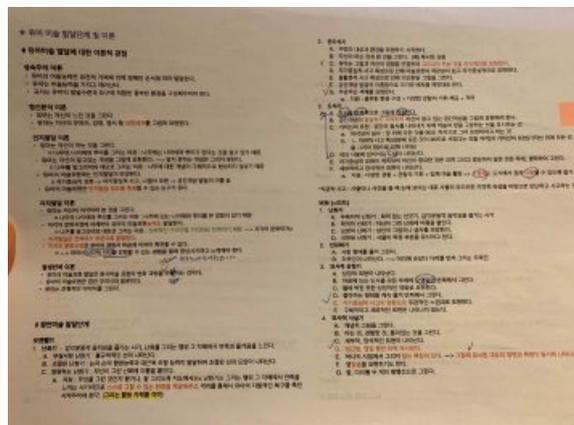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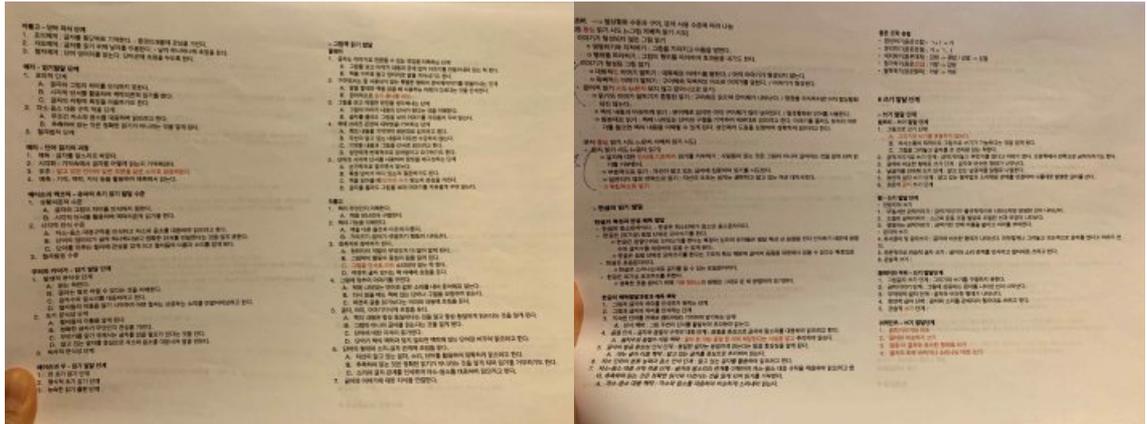
노트북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 ↓



마인드맵은 'EdrawMind'이라는 프로그램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2. 인출 방법

초반에는 손으로 적어서 인출했어요. 집에 이면지가 많았어서 이면지에 매일 손으로 백지 쓰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웹지도+요약본을 달달 외워서 외운 대로 써내려갔습니다. 처음 암기+인출할 때는 너무 막막했는데 하다 보니 이게 되더라구요. 조금 뒤에 가서는 손이 아파서 아이패드에서 키보드로 쳐서 인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출했고, 암기가 덜 된 부분은 빨간색/초록색/분홍색으로 구별해서 표시했어요. 암기가 덜 된 부분만 다시 볼 수 있도록이요. 저런 페이지들로 모든 과목을 인출했더니 거의 책 한권 굵기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걸 인쇄해서 저의 또 하나의 요약본으로 활용했어요. 그리고도 인출은 계속 했어요. 뒤로 갈수록 다 아는 내용이 되어서 사진보다는 점점 더 간단하게 인출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법, 장학자료, 건강안전

(누리과정)

누리과정은 이해자료는 초수 때 보았고,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해설서랑 실행자료 위주로 보았어요. 해설서, 실행자료 번갈아가며 분량을 나누어 매일 회독하려고 노력했으나 사실 매일은 보지 못했습니다. 누리과정 해설서, 실행자료 원본 책과 합격수기로 카페에 올려주셨던 합격생 선생님께서 요약해주신 요약본을 함께 보았습니다. 고시문에 있는 내용 이해 부분은 달달 외웠습니다. 서술시 필요할 것 같아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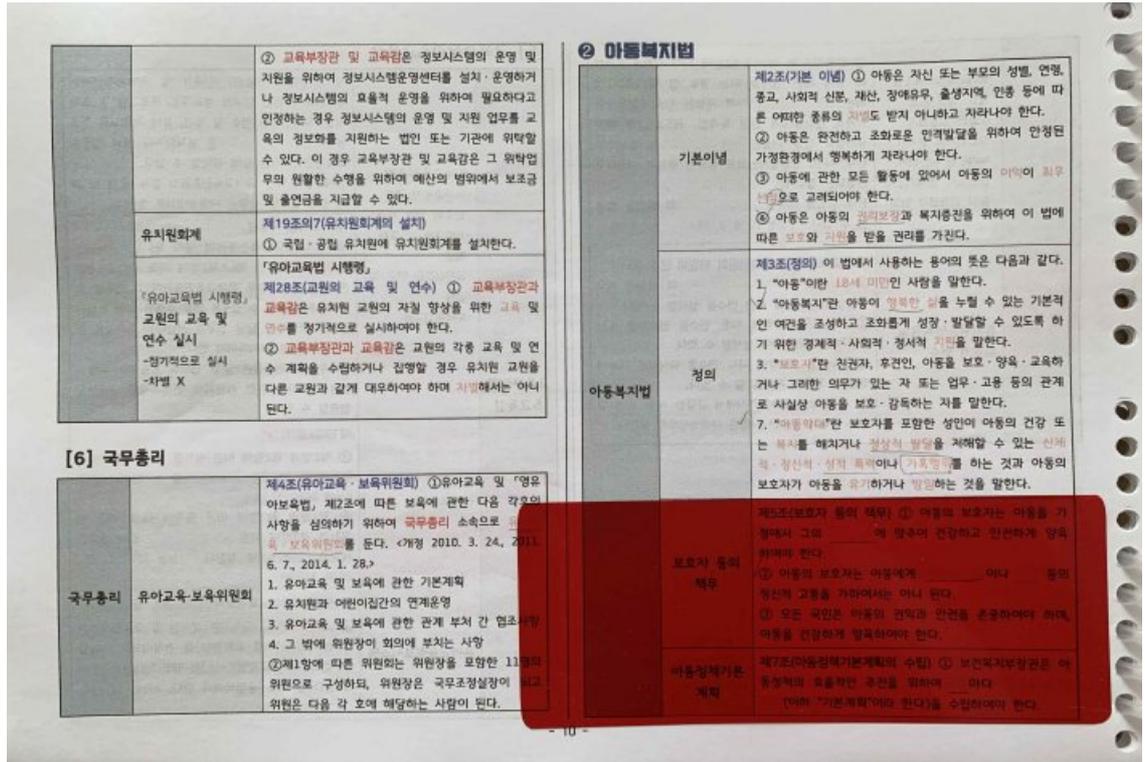
(장학자료+그 외 자료)

작년에 놀이운영사례집과 놀이자료를 제본해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틈틈이 봤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아시다시피 2022 시험에 교사 발문 쓰는 문제와 활동을 쓰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놀이자료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 상황을 생각해두고 교사 발문도 생각해보았어요. 또한 하반기에 가서는 암기하는 것이 지루해져서 여러 가지 기본서도 찾아 읽었습니다. 기본서에 나오는 교사 발문들

도 상황별로 따로 분류하여 정리해서 보았어요. 예를 들면 갈등상황- “만약 네가 ~했을 때 친구가 ~한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니?”이런 식으로요!

[법]

법은 초반부터 보지는 않았고 6월부터 본 것 같아요. 제법이군 이런 책들을 이용해서 많이들 공부하시던데 전 그냥 제가 직접 정리했어요. 워낙 스스로 정리하는 걸 선호해서, 법 하나하나 찾아보고 사진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외워야 하는 부분들은 분홍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빨간색 필름지를 이용해서 사진과 같이 암기하였습니다. 빨간색으로 글씨를 하면 저 빨간색 필름지로는 안 가려더라구요. 혹시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암기할 부분을 분홍색으로 표시하시길 추천드려요. 새로 개정된 내용이라 더 많이 보아야 할 부분은 하늘색으로 칠해서 표시했어요. 제가 보았던 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교육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아동복지법[시행령 포함] / 교육기본법**
교직원 관련 법률(교직원이 이수해야 할 법정업무 교육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건강 관련 법률(학교보건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포함]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안전 관련 법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포함]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로교통법)
기타 법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포함] / 한부모가족 지원법 / 다문화가족 지원법 / 인성교육진흥법)

재수 2차 (2022.11~2023.01)

<p align="center">2차 준비 (1차 합격자 발표 전까지)</p>	<p>[기간+스터디] 2차 준비는 시험 끝나고 딱 이틀정도 쉬고 시작했어요. 그때 바로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먼저 스터디원 한 분을 구해서 놀이2017~2020자료를 요약했어요. 놀이의 흐름을 알고 교사지원방안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원 선생님과 의논을 한 결과 세 명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한 분을 더 구했어요! 그렇게 세 분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고 맛보기한 건 이틀 후부터였지만 정식으로 연습을 시작한 건 시험 끝난 후 일주일 후부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는 일주일에 2번 만났고 마지막 1차 합격자 발표 전 주에만 세 번을 만나서 연습했습니다.</p> <p>[방법] 저는 무조건 기출 위주로 돌렸어요. 기출을 2019~2022년까지 경기, 서울 지역을 돌렸어요. 서울은 경기도처럼 자유놀이로 저희가 문제를 변형하여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구상 못했어요. 무작정 부딪혀보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처음에는 집에서 구상해 와서 감을 좀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한 3번? 정도만 즉석에서 구상해서 했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그래도 얼추 어느 정도 자신만의 틀이 만들어져서 구상이 가능해 지더라구요! 그리고 시책과 놀이운영사례집도 혼자서는 안 읽게 될게 뻔하기 때문에 세 명이서 분량을 나누어서 요약본을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1차 합격도 못하면 쓰지도 못 할 텐데 지금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닌가 힘들긴 했지만 지금 힘들어도 1차 합격하면 이 모든 게 너무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1차합 후 2차 준비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였습니다.</p> <p>[활동] 경기도는 여태까지 자유놀이로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자유놀이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활동을 한 번씩 돌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저는 이 시기에 활동한 번씩 돌리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물론 자유놀이도 함께요! 1차 합격자 발표 후에 2차 준비하면서 활동을 한 번도 안 해본 것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활동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p>
<p align="center">하고 싶은 말</p>	<p>▶ 2차는.. 무조건 일주일만 쉬고 하세요!!</p> <p>혹시나 1차 끝나고 이 글을 보시게 될 선생님들 혹은 1차 시험보기 이전에 보게 되실 선생님들! 2차는 무조건 최대 일주일만 쉬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p> <p>제가 만약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이미 준비를 해두었는데도 1차 합격을 하자마자 와 나 많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덜컥 걱정부터 들었어요. 그러나 그나마 1차 끝나고 해두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출복기 자료와 놀이운영사례집, 시책 자료 등 자료도 풍족했고 저 나름대로의 틀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꼭... 1차 끝나고 지금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꼭 일주일만 쉬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p>
<p align="center">2차 준비 (1차 합격자 발표 후)</p>	<p>계획형인 제가 이때부터는 계획을 전혀 지킬 수 없었습니다. 2차는 그만큼 계획대로 한다가 보다는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3주라는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외워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시책, 놀이자료 강독하기였습니다. 다행히 1차가 끝나고 나서 자료들을 요약해두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었어요.</p> <p>[교재] 저는 수업실연은 별도로 수업실연 교재를 구매해서 보았어요! 면접은 온전히 민쌤 자료로만 보았습니다. 민쌤이 올려주신 문제는 대부분 다 풀어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주절주절하면서 연습했습니다. 근데 면접 교재는 다른 교재들도 많으니 함께 구매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p>

[기간+스터디] 합격자 발표 당일, 1차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안 해서 저녁 늦게 합격자 발표를 확인했고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 부모님과 끌어안고 강강술래 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뻐하는 것도 잠시 불안감이 급 밀려왔고 저와 함께 하던 스터디원 중 저 혼자만 1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즉시 새로운 스터디원을 구해야 했습니다. 스터디는 임용카페에서 구해서 짝스터디로 진행하기로 했고, 짝선생님하고 정말 매일 거의 하루 종일 연락하며 같이 공부했어요. 오프라인 스터디 주기는 처음에는 평일 5일 내내 만나려고 했으나, 갈수록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주일에 세 번, 두 번으로 줄어나갔습니다. 개인공부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나 필요한 자료나 유용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매일 밤마다 전화로 시책, 놀이자료 강독하고 생각 나누고 하며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경력이 없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말 온라인 스터디를 구했어요. 이때는 자유놀이 외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나누기, 게임, 신체표현 등 그나마 나올 수 있을 법한 활동 위주로 했고 주말스터디도 도움이 되었어요.

[공부방법]

▶ 자신만의 틀 만들기

[면접] 다양한 자료들을 모은 다음에는 그 자료들을 참고하여 저만의 만능틀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임교사에게 필요한 태도→ ①술선수범하는 태도, ②협력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기, ③원장선생님께 도움 구하기 ④배움의 기회로 삼기 등 / 유치원 교사에게 필요한 미래사회 역량→ ①의사소통 역량 ②문제해결 역량 ③디지털 역량 등...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저만의 틀을 만들어나갔습니다. 면접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이상하게 나와도 잘 읽어보면 결국에는 했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만능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수정해나갔고 인쇄해서 다시 그 위에 적어서 또 추가해나갔습니다.

[수업실연] 수업실연도 계속 하다보면 자신만의 틀이 생겨요. 구상지 작성방식도 생기고,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인지도 자신만의 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좋은 발문, 상호작용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생 복기나 다양한 발문 자료들을 찾아서 또 발문을 정리해나갔어요. 시험 3일 전에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마인드맵으로 정리했습니다.

▶ 피드백 수용하기

저는 스터디하며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들으면 객관적인 자신의 수준을 알 수 있어서 성장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드백 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피드백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고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중에서도 저 스스로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합격생 선생님들의 피드백’** 덕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민쌤 피드백도 받고 싶었는데 선착순 신청을 놓쳐버려서 아쉬웠지만 카페에서 도움 주시겠다는 선생님들, 실습 갔을 때 선생님, 등 정말 감사하게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온라인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기도 했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했는데 솔직히 스터디도 정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수험생들은 아주 뛰어난 한두 분 빼고는 대부분 도긴개긴이라고 생각합니다..! 합격생 선생님들의 다양한 팁과 현장에 계신 선생님의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이를 통해 성장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합격생 선생님께 피드백 받을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영상 촬영하기 + 클로바노트 활용하기

영상을 촬영해서 보면 자신의 안 좋은 버릇을 알게 됩니다. 저는 눈을 자주 깜빡거린다는 것과 의외로 말을 많이 더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고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단점이나 버릇을 알고 있다면 훨씬 신경 쓰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클로바노트★★ 매우 도움이 되었던 어플이었습니다. 면접, 수업실연 연습할 때 항상 클로바노트로 녹음하였습니다. 제가 한 말을 자동으로 글로 옮겨주기 때문에 저의 발음, 말버릇, 문장의 매끄러움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좋았어요. 클로바노트로 제가 한 말을 읽어보고 내용이 별로다 싶으면 다시 해보기도 하는 등 정말 많이 활용했습니다. 연습할 때 영상 촬영과 클로바노트 활용하는 것은 정말 강력 추천 드려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저는 사실 공부하면서 슬럼프라는 것이 올 틈이 없었어요. 제 자신도, 친구들도 모든 걸 포기하고 공부하며 너무 힘들어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슬럼프라는 게 와서 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얼마 없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대신 제 자신을 잘 알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지치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제때 쉬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스트레스 방법을 알고 적절하게 해소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일 합격하고 나서 있을 행복한 일상을 상상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분은 엄마였기 때문에 합격창을 보게 되면 꼭 가장 먼저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첫 월급으로 엄마 선물 사드려야지, 얼른 빨리 우리 반을 맡게 되어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등 너무나도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회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합격수기를 읽으며 마음을 다지기도 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이 저에게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적은 모든 말들이 '합격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저는 '간절한 만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길은 정말 없다고 생각하고 임했고, 이러한 간절함이 합격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했으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모든 수험생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